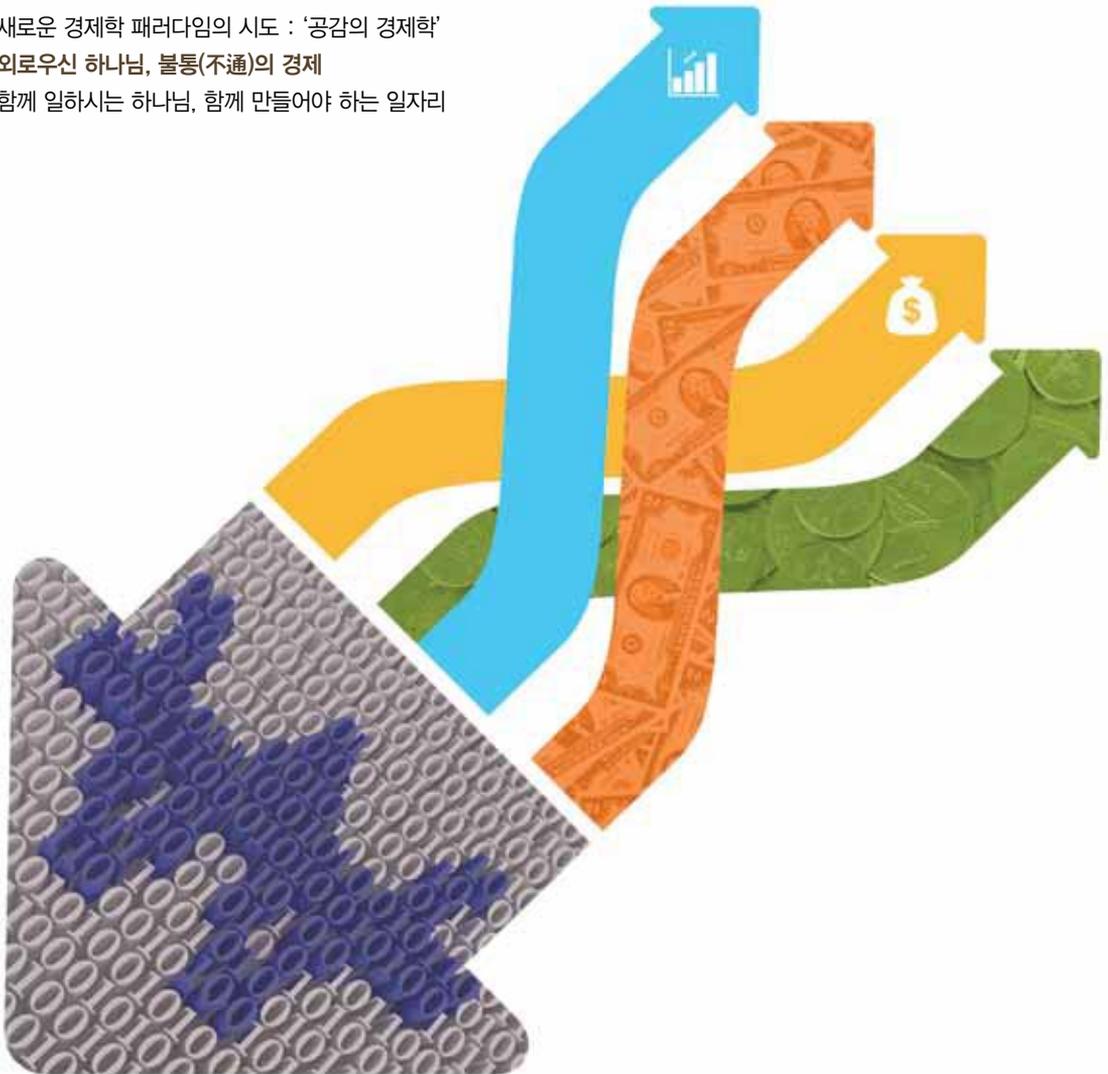


# 외로우신 하나님, 불통(不通)의 경제

🕒 김태황 (기독교학문연구회 부학회장, 명지대 교수)

## 공감의 하나님, 공감의 경제학

1. 새로운 경제학 패러다임의 시도 : '공감의 경제학'
2. 외로우신 하나님, 불통(不通)의 경제
3.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함께 만들어야 하는 일자리



## 불통 경제 해소의 실마리

하나님도 외로우셨음에 틀림없다. 그렇지 않으시고서는 사 고공치 인간을 창조하실 이유가 없었을 터이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후에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자랑하신 하나님께서 “흠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 생령이 된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의 대화 상대가 되었고, 그 덕분에 하나님에 이끌려 에덴동산을 경작하는 경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창 2:15). 이러한 인간 창조의 과정을 통해 오늘날 동맥 경화증을 보이는 경제 현상에 대한 흥미로운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즉 소통과 순환이 원활하지 못한 경제 현상은 외로우신 하나님의 심정에서 해소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 불통의 경제 현상

국제통화기금(IMF)의 추산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 1인당 국내 총생산(GDP)은 2만 4,329달러로 세계 33위로 상승했다(2008년 41위). 올해 경기 회복의 조짐이 보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는 여전히 경기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약 3조 2,000억 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통화량을 공급하는 양적 완화를 시행하였고, EU도 재정위기 국가들을 지원하면서 막대한 자금을 유통시켰다. 일본도 20년 전부터 0%대의 금리와 아베 정권의 경기 부양책으로 역시 ‘돈 잔치’를 벌여왔지만 체증은 여전히 실정이다. 어떻게 된 일일까?

2013년 우리나라 10대 그룹 전체의 사내 유보금은 총 470조 8,000억 원 규모로 2012년에 비해 8.8%가 증가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기업의 대출 규모는 39조 7,000억 원에서 20조 1,000억 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2013년 가계의 금융 대출 규모는 1년 만에 9조 원 증가하여 59조 4,000억 원에 도달한 동시에 잉여 자금 규모도 2012년보다 3조 6,000

억 원이 증가하여 87조원 규모가 되었다. 또한 장기성 예금은 감소하고 단기성 예금은 약 35조 원이나 증가하여 50조 5,000억 원 규모로 급상승했다. 요약해 보면, 가계는 늘어난 부채로 소비를 증가시키기보다는 단기성 예금으로 잉여 자금을 늘였다. 기업은 부채를 줄여 금융비용을 낮추었지만 투자를 증대시키거나 배당금을 인상시키는 대신 기업 금고에 현금을 더 쌓아두게 되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민경제에 자금 순환이 위축되고 느려지게 된 것이다. 그 덕분에 애가 탄 정부는 자금의 유동성을 높여보려고 재정 지출을 증대시켰고 국가 부채는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기라면 가계의 소득과 기업의 매출 이익이 감소하여 잉여 자금 또는 유보금이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런데 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다. 생산과 소비, 저축과 투자, 노동(자본) 투입과 소득 등의 순환 구조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한 것이다.

청년들의 ‘구직난’과 중소기업의 ‘구인난’도 전형적인 불통의 경제 현상이다. 청년들은 취업이 어려워 온갖 ‘스펙’쌓기에 열중하고, 중소기업들은 인력이 부족하여 좋은 품질의 상품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건설 현장이나 단순 기계 작업 현장 등 육체적 노동 강도가 높은 일자리는 국내 기능 인력이 부족하여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정상적인 생산 활동이 어렵다. 일자리를 찾는 청년 인력의 공급이 늘어나면 임금이 내려가고 이에 따라 인력 수요가 다시 늘어나야 하는데 오히려 일자리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인력이 부족하면 임금과 근로 복지 수준이 개선되어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늘어나야 하는데 대기업 선호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왜 이렇게 시장의 자율 조정 기능에 역행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 구직자와 구인 기업 간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는 정부제도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국가 경제는 심각한 병치레를 치루며 마비되어 갈 것이다.

## 불통의 대가

경제는 인체와 닮았다. 인체에 피가 원활하게 순환되어야 생명의 활기가 있듯이 경제도 생산요소, 재화와 서비스가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돈'(자본)의 흐름이 원활해야 활성화될 수 있다. 체중이 70킬로그램인 사람의 몸속에 있는 약 5.6리터의 피는 1분에 온몸을 한 번 돌 정도로 쉴 새 없이 순환한다. '피'가 응고되면 생명체의 수명이 다하는 것처럼, '돈'의 흐름이 정체되면 자본주의 경제는 마비된다. 돈이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이 원활하게 '순환하는 것'이다. 피가 많더라도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응고되어 치명적인 것처럼, 돈도 한 곳에 집중되면 경제를 불구로 만들게 된다. 은행에 돈이 쌓여 있는데 기업 대출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근로자의 소득이 고스란히 돼지 저금통(집안 금고)에 쌓인 채 소비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기업이 이윤을 사내 유보금으로 쌓아두기만 한다면, 정부가 세금을 거두어서 재정 지출을 하지 않는 등의 상황은 가계나 기업, 정부의 현금 자산은 늘어날지언정 국민경제를 심각한 동맥 경화증의 위기에 빠지게 한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1억 원의 소득을 금고에 그대로 보관해 두기만 하면 1억 원의 가치만 간직할 뿐이다. 하지만 그가 소득의 25%는 저축하고 75%는 필요에 따라 소비하면 7,500만 원은 돌고 돌아서 4배인 4억 원의 가치를 창출한다(화폐 승수효과). 같은 금액의 돈이라도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경우와 돌고 도는 경우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같은 사람이라도 환자일 때와 건강할 때는 전혀 다른 생활을 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 소통의 열쇠 : 공감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약 2.5배 수준이고, 청년 고용률이 37.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50% 보다 크게 낮음을 고려해 보면 청년 일자리 창출은 국제적 수준에서도 시급한 현안이다. 정부가 올 4월 발표한 <일자리 단계별 청년 고용 대책>은 교육→직업 훈련→인턴→취업의 단계별 연계성을 높이고 청년 인력과 기업의 현실적인 일자리 공감대를 넓히려고 안간힘을 쓴 것으로 보

인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강제로 일을 시킬 수도 없고 아무에게나 일자리를 제공할 수도 없다. 정당한 근로 대가를 지불하고 지급받을만한 노동력을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누구나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선호하는 만큼 모든 기업도 좀 더 우수한 인력을 선호한다. 따라서 일방적인 선택이 아니라 쌍방이 소통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시장 교환가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고용 문제를 예로 들면, 일자리를 찾는 사람과 인력을 찾는 기업의 경제적 높낮이와 가치관이 서로 공감될 수 있어야 지속가능한 만남이 형성될 수 있다.

청와대에서 아무리 근엄한 목소리로 대기업의 투자 확대를 강조해도 대기업 스스로가 투자를 확대할만한 시장 여건을 예견하지 못한다면 사내 금고에 돈을 쌓아둘지언정 불확실성이 높은 투자를 확대하기란 어렵다. 소비자도 마찬가지다. 한국은행이 아무리 앞장서서 금리를 낮춘다 하더라도 자신의 미래 소득이 불확실하다면 소비자는 소비를 증대시키기가 어렵다. 일본의 소비자는 20년간 지갑을 닫았다. 반면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경제 순환이 원활하게 작동할 것으로 공감한다면 생산자는 내일의 이윤 증대를 기대하며 오늘 투자를 확대하고, 소비자는 내일의 소득 증대를 기대하며 오늘 소비를 늘릴 수 있을 것이다.

## 외로움과 불통을 넘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창 2:15). 왜 하나님께서 전권을 행사하지 않으시고 아담에게 경작권을 위임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령으로 지으신 인간과 소통하고 공감하시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 인간으로 오신 것은 인간의 죄를 100%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철저히 공감하여 당신의 길을 따르도록 이끄시기 위함이 아니겠는가.

경제 활동과 정책의 목표를 성과 중심으로 설정하는 것은 매우 실용적이다. 하지만 사람의 일이 다 그러하듯이, 우리가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다 이뤄지는 것도 아니고 설령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반드시 바람직한 것도 아닌 경우가 허다하다. 성과 달성에 지나치게 몰입하다 보면 자칫 탐욕과 부정부패에 노출될 우려가 커진다. 돈의 위력은 우리 인간의 자제력을 초월한다는 사실은 성경에서도 반복하여 강조되고 있고 우리 실생활에서도 무수히 경험해 오고 있다. 이는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활동해야 하는 유한한 상대적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과 지향적인 목표를 설정하더라도 접근하는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실 수 있는 여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잠 16:1-9). 즉 하나님께서 말씀부리기 인간에게 땅을 경작하고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시면서 인간과 더불어 일하시듯이 우리도 적자생존의 진화론적 접근이 아니라 공감상생의 창조론적 방식으로 경제제민(經世濟民)해야 할 것이다.

공감의 원리로 동맥 경화증의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자는 생각은 사회주의 체제의 절대적 평등과 분배의 이념과 상통하는 면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다르다. 공감의 생각에는 개인의 자유와 책임이 있고 수직적 권력이 아닌 수평적 이해가 있다. 공감의 경제학은 다양하고 차등적인 개인의 자유로운 독창성과 재능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독자성과 공동체성이 경제적 의사결정을 이끌어가는 근간이다. 초대 교회의 공동체가 사회주의 이념의 원형이 되었고 칼빈의 종교개혁이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주춧돌이 된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공감 패러다임은 이념의 틀에 갇힐 수 없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모방해 나아갈 따름이다.

공감의 경제활동이 혹 단기적으로는 비효율적이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경제는 100미터 달리기보다 마라톤이다. 창조와 공감의 과정 및 결과는 영원한 현재 진행형인 하나님의 시간에서 만들어질 것이다.

불통의 경제에 돌파구를 뚫는다고 내 몸을 혹사시키고 상대방을 몰아세워서는 안 된다. 나의 필요에 타인을 초청하고 타인의 필요에 내가 찾아가서 적응해야 한다. 개인과 기업, 정부, 시민단체가 각각 상이한 경제활동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서로 조절하며 다가가는 과정과 절차를 중요하게 이행해야 한다. 한통속이 되어야 한다든지 한 패거리가 되어야 한다는 획일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소리의 메아리를 듣고 목을 가다듬어 다시 산을 향하여 다가가자는 것이다.

경제학은 역동적이고 불확실한 사회 현상을 탐구하는 사회과학이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정부든 경제적 의사결정은 사람이 한다. 경제학이 사회 현상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해석하고 대응하려고 애쓰는 만큼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닮아갈 수 있는 길도 동시에 탐구해야 한다. 오늘날 글로벌 경제가 부익부 빈익빈의 치우침과 불통의 중증 장애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은 경제학이 건강 진단을 받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이며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과 기독교학문연구회 부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명지대와 하와이 열방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크리스천최고경영자과정(C-LAMP)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섬기고 있다.